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2019.3.25.(월) 14:00	배포	2019.3.25(월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손 주 형(02-2100-2860)	담 당 자	송희경 사무관(02-2100-2862) 김종식 사무관(02-2100-2865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제 목 : 최종구 금융위원장, 혁신금융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·경북지역 자영업·자동차산업 현장방문

◆ '19.3.25(월)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.21일 선포한 혁신금융 비전의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·경북 자영업·자동차부품산업 현장을 방문

①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(10:40~11:20)

■ 자영업자·일자리창출기업 등에 금융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사회공헌자금(1,000억원)을 마련, 지원 프로그램 신설(3.25일 시행, 1.4조원)

※ ①자영업자 0.6조원, ②일자리창출기업 0.7조원, ③사회적경제기업 0.15조원

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Ⅲ은행-보증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, Ⅲ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보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「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」의 취지를 설명

② 대구·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개최(14:00~15:20)

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「자동차 부품업체 P-CBO」를 본격 시행(3.29일 1차 발행 예정)

※ 자동차산업 지원 : ①자동차 P-CBO(1조원), ②우대보증(1조원), ③만기연장(1.3조원)
주력산업 혁신지원 : ①산업구조고도화(10조원), ②기업구조혁신펀드(1조원)

■ 혁신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구·경북 Ⅲ부품업체 생산공장 방문 및 Ⅲ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,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

I. 대구·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개요

- '19.3.25(월)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.21일 발표한 「혁신금융 비전」의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·경북지역 자영업·자동차산업 현장을 방문

* [일정]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(10:40~11:20, 신보 본점)
→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(14:00~15:20, 대구경북소재 부품업체)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「혁신금융 비전」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,
 - 혁신금융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, 산업의 혁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

◆ 혁신금융 추진방향 ◆

※ 19.3.21 발표

①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

√ 부동산담보, 과거실적 → **일괄담보, 미래성장성** 위주로 **기업여신체계 전환**
(기술금융·동산담보·성장성기반대출 3년간 100조원)

②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

√ **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, 증권시장 기능 강화**, 자본시장 세제개편 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(3년간 코스닥 신규상장 80개)

③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

√ 사업재편·新산업 확산 등 **산업구조 고도화 지원** 확대(3년간 12조원)
√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**유망서비스산업 혁신 견인**(5년간 60조원)

II. 대구·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주요내용

1.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(10:40~11:20)

[1] 개 요

- '19.3.25(월)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은행-보증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 참석

<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행사 개요 >

■ 일시·장소 : '19.3.25(월) 10:40~11:20, 신용보증기금 본점(대구혁신도시)

■ 주요 참석자

- 최종구 금융위원장,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,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
- 김태영 은행연합회장, 손태승 우리은행장, 김도진 기업은행장, 지성규 하나은행장, 김태오 대구은행장, 정만근 신한은행 부행장

- ① 은행권 사회공헌자금(1,000억원)을 바탕으로 한 금융지원(1.4조원)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은행-보증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

※ ①자영업자(0.6조원), ②일자리창출기업(0.7조원), ③사회적경제기업(0.15조원)

-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의 온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
- 특히,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, 그리고 재도전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,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

- 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상담창구(본점 1층)에서 자영업자를 만나 보증상담을 실시하고, 애로사항을 청취

-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,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지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

[2]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주요내용

- 신·기보와 은행은 1,000억원의 재원을 통해 지원필요성이 높은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(3.25일 시행)
 - 우리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❶일자리창출기업, ❷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한편,
 - 매출 불안,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❸자영업자를 지원

<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>

구 분	❶일자리창출기업	❷사회적경제기업	❸자영업자(→(3)번)
지원규모	6,660억원	1,560억원	6,000억원
주요 지원대상	▶고용창출우수기업 *상시근로자수 증가 기업, 정부인증 우수기업 등 ▶고용의질우수기업 *근속년수 복지 등 우수기업	▶사회적기업 ▶마을기업 ▶자활기업	▶영세 자영업자 ▶데스밸리 자영업자 ▶재창업 자영업자
보증기한	만기 3년	만기 3년	만기 5년
보증료율	0.2%p 차감	0.2%p 차감	상품에 따라 0.3~0.5%p 차감 * 재창업은 0.5% 고정료율

[3]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(총 6,000억원) 주요내용

(☞ 상세 내용은 「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(별도 보도자료)」 참조)

-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(“3종 세트”) 마련

- ❶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점 지원(4,500억원)

* 자영업자의 잠재력·성장가능성 등을 살펴 최대 3억원까지 지원

② 매출 감소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별지원(1,200억원)

* 보증비율 100% 적용, 보증심사 완화 등을 통해 최대 1억원 지원

③ 과거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(300억원)

* 민간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성·성장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

□ 비용증가 등 자영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

○ 보증기관의 ⁽ⁱ⁾보증비율을 대폭 상향하고, ⁽ⁱⁱ⁾보증료율은 대폭 인하하여 획기적으로 지원

* (i) 보증비율 : 일반 85% → 영세 95%, 데스밸리·재창업 100%

(ii) 보증료율 : 영세 0.3%p ↓, 데스밸리 0.5%p ↓, 재창업 0.5% 고정요율 적용

○ 특히, 자영업 부문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“축적의 시간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⁽ⁱⁱⁱ⁾만기 5년의 장기로 공급(통상 만기 1년)

<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>

구 분	①영세 자영업자	②데스밸리 자영업자	③재창업 자영업자
지원대상	연매출 5억원이하 자영업자	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 등 영업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	신청일부터 3년 이내 폐업경험이 있는 (예비)재창업자
보증비율	95%	100%	100%
보증료율	0.3%p 이하	0.5%p 이하	0.5% 고정요율
보증한도	3억원	1억원	1억원
보증심사	성장성·잠재력 기반 보증심사	완화된 보증심사	특별위원회 심사
보증기한	5년	5년	5년

※ 문의처 :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(1588-6565) 및 영업점
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(1544-1120) 및 영업점
그 외 17개 은행 고객센터(첨부) 및 지점

< 별첨 1 > 금융위원장 모두말씀(오전)

2. 대구·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(14:00~15:20)

[1] 개 요

- '19.3.25(월)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구·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공장을 방문하고,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에 참석

< 대구·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 및 현장간담회 >

■ 일시·장소 : '19.3.25(월) 14:00~15:20, 대구·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

■ 주요 참석자

- 최종구 금융위원장,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, 산은·기은 지역본부장
- 현대차, 중소·중견 자동차 부품업체(5개 업체)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
-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을 “과거실적·부동산담보”에서 “미래성장성·자본시장”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 성장을 이끄는 혁신금융 비전을 구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
 - 오늘 간담회가 개최되는 대구·경북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사업체의 18.9%, 종사자수의 15.8%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이며,
 -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산업의 중심지로서, 핵심적인 지역산업 현장이라고 언급
 -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,
 - 특히, 「자동차 부품업체 P-CBO」는 정부·지자체·완성차업체의 상생(相生)을 통해 도입된 만큼, 부품업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

-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업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며, 시중자금이 건실한 제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설계해 줄 것을 요청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,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답변
- 나아가,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·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
- 정책금융기관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5년 만기의 기술혁신·사업재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이외에도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

◆ [참고] 자동차부품업체 금융지원프로그램 ◆

1 신규자금 공급 및 대출·보증 만기연장

- ① (자동차 부품업체 P-CBO) 정부·지자체·완성차업체 공동 출연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장기(3년 이상) 시설·운영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
- ② (자동차 부품업체 우대보증)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신·기보 우대보증 제공('18.11 시행)
※ 지원실적('19.3.15 기준) : 518건, 1,437억원 → 8,563억원 한도여유
- ③ (만기연장)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·보증 만기연장
※ 지원실적('19.3.15 기준) : 835건, 3,360억원

2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

-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장기자금(최장 15년) 지원('19.1.24일 시행)
※ 지원실적('19.2.28 기준) : 60건, 902억원 → 9.91조원 한도여유

3 기업구조혁신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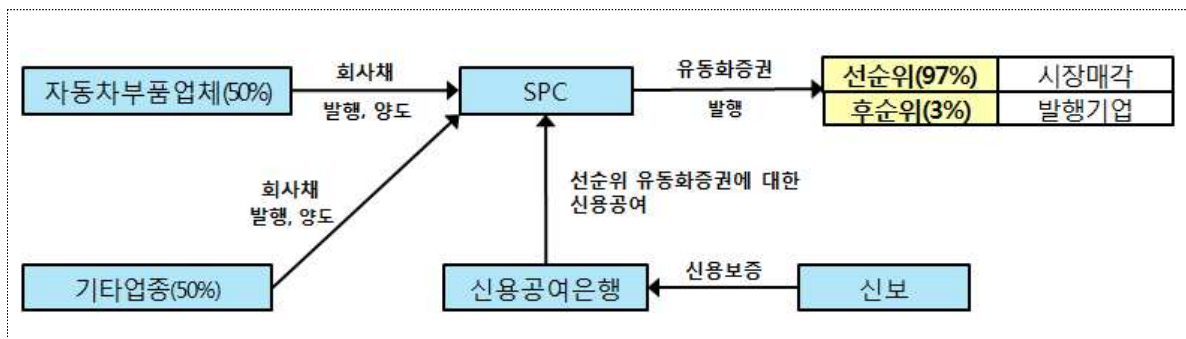
-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중소·중견기업 구조조정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정상화(Turn-around)를 지원(운용규모 1조원)

[2] 「자동차 부품업체 P-CBO」 운용방안 주요내용

(☞ 상세 내용은 「자동차 부품업체 P-CBO 운용방안(별도 보도자료)」 참조)

- (개요) 완성차업체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·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부품업체의 편입 비중을 최대 50%까지 상향한 「자동차 부품업체 P-CBO」 도입
 -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정부·지자체와 함께 완성차업체가 상생(相生) 차원에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
- (구조) 자동차 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50% 이내로 편입한 유동화증권을 발행
 - 선순위 유동화증권(97%)은 신보의 신용보강 이후 시장에 매각하고, 후순위 유동화증권(3%)은 발행회사가 매입

< 자동차 부품업체 P-CBO 기본구조 >



- (규모) 총 1조원의 장기자금(만기 3년, 차환가능)을 순차적으로 공급
- (한도)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,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
 - 최고한도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개별기업 지원한도를 산정

[3] 「자동차 부품업체 P-CBO」의 특징

-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P-CBO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

- ☐ 기업은 자금을 장기·안정적(만기 3년 & 고정금리)으로 운용할 수 있어*, 기술개발·활로개척 등 미래대비 자금으로 활용 가능

* 대출보증의 경우 통상 만기 1년,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변동

(3) 「자동차 부품업체 P-CBO」 1차 발행(안) 및 향후계획

- ☐ 3.29일 제1차 유동화증권을 발행(총 1,110억원)하여 15개 부품업체에 430억원을 공급할 예정(나머지 680억원은 非자동차 중소·중견기업에 공급)

- 중견 부품업체 280억원(4개사), 중소 부품업체 150억원(11개사)을 만기 3년의 장기·안정적인 자금으로 지원(차환 가능)

- ☐ '19년 한해동안 중소·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6차례에 걸쳐 총 3,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

※ '19년 지원규모는 부품업체의 자금수요에 따라 확대 가능

- 오는 3.29일 1차 발행에 이어 2차(4월), 3차(5월)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

< '19년 자동차 부품업체 P-CBO 발행일정(안) >

구분	2019년 상반기			2019년 하반기		
	1차	2차	3차	4차	5차	6차
발행일정	3월	4월	5월	9월	10월	11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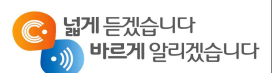
※ 문의처 :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(1588-6565) 및 인근 영업점

< 별첨 2 > 금융위원장 모두말씀(오후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첨 부

은행-보증기관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(자영업자, 일자리창출기업,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프로그램)

구 분	고객센터
신용보증기금	1588-6565
기술보증기금	1544-1120
KB국민은행	1588-9999
KEB하나은행	1588-1111
신한은행	1577-8000
IBK기업은행	1566-2566
우리은행	1588-5000
NH농협은행	1661-3000
DGB대구은행	1566-5050
SC제일은행	1588-1599
한국씨티은행	1588-7000
BNK경남은행	1600-8585
BNK부산은행	1544-6200
SH수협은행	1588-1515
광주은행	1588-3388
전북은행	1588-4477
제주은행	1588-0079
KDB산업은행	1588-1500
한국수출입은행	02-3779-6114

※ 고객센터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